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84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3.19~2026.03.25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8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예비후보, 미래, 청년, 갈등, 에너지
경제·관광	모빌리티(엑스포/전기차), 국제, 항공(노선/운항), 세계, 기술
지역·사회	사건, 의료, 대응, 사례, 구조

※ 분석 기간 : 26.03.19.~26.03.25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예비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국민의힘 도의원 예비후보 공천 갈등 - 제주시 애월읍갑 여야 예비후보 1대1 맞대결 -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의 관권 선거 개입 고발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우주산업 원스톱 공급망 구축과 미래 신산업 - 미래 고속철도와 제주-서울 해저터널 구축 논의 -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미래 산업 축소판 규정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비례대표 청년 공개오디션 불공정 논란 - 진보당 정근호 예비후보의 제주청년 메카 연동 정책 - 도지사 예비후보들의 맞춤형 청년 정착 및 주거 지원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 찬반 갈등과 원안 권고 -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와 숙의 공론화 절차 - 여야 주요 정당 도의원 공천 파열음과 내부 갈등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곤 예비후보의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프로젝트 - 고유가 에너지 위기 대응 공직자 차량 5부제 전면 시행 - 오영훈 지사의 에너지 대전환과 분산에너지 특구 구상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모빌리티 (엑스포/ 전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막 - 2027년 평양 국제전기차엑스포 추진 - 엑스포 연계 전기차 무상 점검 서비스 운영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관광전략회의 출범 - 제주-대만 직항노선 활성화 및 밀착형 마케팅 - 방한 외래객 확대를 위한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
	항공(노 선/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만의 제주-인천 국내선 직항 노선 부활 - 하계 정기 항공편 일정 확정 및 LCC 대체 투입 - 도민 편의 증진 위한 제주-인천 환승 내항기 추진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e-모빌리티협의회(GEAN) 제11차 총회 개최 - 세계적 해상 탄소 규제 대응 친환경 선박엑스포 - 제주올레-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공동완주 인증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스마트 주방 구축 및 푸드테크 기술 실증사업 - AI·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 활용 기후 및 관광 실증 - 카카오 오픈이노베이션 통한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 발굴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좌읍 생후 3주 영아 사망 및 부검 시행 -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폭행 혐의 기소 의견 - 제주 해안가 차 봉지 위장 마약류 대량 발견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과 의료 재판 - 제주대학교병원 차기 병원장 공개 모집 실시 -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치과 치료 400건 돌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길 잃음 주의보 발령 - 이륜자동차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 전면 도입 -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선거사범 단속 체제 가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유괴 의심 사례 보고 및 수사 결과 - 폐어구 얽힌 새끼 돌고래의 스스로 생존 사례 - 배달앱 음식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적발 사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 지형 특화 119 인명 구조 및 합동 훈련 - 제주 최초 여성 사다리차 운용 전문 소방관 배출 - 해상 기름 유출 대비 로봇형 유회수기 구조 도입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3월 19일~3월 25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1,034건임
 - 정치·행정 분야 520건, 경제·관광 154건, 지역·사회 360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예비후보, 미래, 청년, 갈등, 에너지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예비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국민의힘 도의원 예비후보 공천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며 극심한 당내 내홍을 겪고 있음. 민주당은 단수 후보 선정 심사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범죄 이력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 적용이 매우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불공정 시비 및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국민의힘 서귀포시 특정 선거구에서는 비례대표와 현역 의원 간의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사자 간 사전 합의가 전혀 없는 기습적인 여론조사 실시
-------	------	---

정치·행정	<p style="text-align: center;">예비후보</p>	<p>로 파장이 커짐. 이에 강력히 반발한 예비후보들이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탈당 후 무소속 출마까지 예고하며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위기 상황임.</p> <p>- 제주시 애월읍갑 여야 예비후보 1대1 맞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애월읍갑 선거구에서 현직 도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더불어민 주당 장정훈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강재섭 예비후보 간의 매우 치열한 1대1 맞대결 구도가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확실시됨. 두 후보 모두 각자의 전문성과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표심을 탄탄하게 다지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함. · 민주당 장정훈 예비후보는 관광학 및 공학박사 지식을 심분 바탕으로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과 액화천연가스 배관 문제 해결을 주요하게 약속함. 반면 국민의힘 강재섭 예비후보는 32년간의 풍부한 행정 공직 경험을 적극 살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함. <p>-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의 관권 선거 개입 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명호 진보당 제주시지사 예비후보가 최근 불거진 제주도 정무 라인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전현직 공무원 및 관련자 일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발함.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심각한 관권 선거로 엄중히 규정하고 철저한 법적 처벌을 촉구함. · 오영훈 제주지사의 최측근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은밀히 개설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태임. 이에 김 예비후보를 비롯한 여러 야당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오 지사의 책임 있는 해명과 공식 사과를 강력 요구함.
	<p style="text-align: center;">미래</p>	<p>- 제주 우주산업 원스톱 공급망 구축과 미래 신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민간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소를 앞두고 위성 제조부터 해상 발사, 지상국 관제, 데이터 활용까지 하나로 완벽히 이어지는 독자적인 우주산업 가치사슬을 완성함. 이를 통해 전 세계 우주 기업 간 데이터 교환과 비즈니스 창출을 이끄는 아시아 스페이스 허브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함. · 다수의 유망한 국내 우주방산 기업들이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사 설립을 잇따라 확정하면서 지역 내 우주산업 전문 인재 채용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함.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둬. <p>- 미래 고속철도와 제주-서울 해저터널 구축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미래 획기적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가 초고속 철도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학회와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 고속철도와 제주-서울 해저터널 미래발전 세미나가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됨.

	<p style="text-align: center;">미래</p>	<p>미래 교통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각과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에서는 국내 최신 미래 고속철도 기술 개발 현황을 심도 있게 공유하고 제주와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해저터널 구축의 전략적 의미를 철저하게 분석함. 특히 기술적 타당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철저한 환경 보존 및 물류 혁신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진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이 적극 진행됨. <p>-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미래 산업 축소판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오는 30일 제주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지역의 담대한 미래 비전을 도민과 함께 직접 그려가는 의미 있는 타운홀 미팅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임. 대통령은 특별한 섬 제주를 아름다운 관광과 독창적인 문화,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완벽한 축소판으로 공식 규정하며 기대감을 표출함. · 대통령은 제주가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적극 바탕으로 국가적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섬이자 혁신적인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선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저력과 가능성을 지녔다고 긍정 평가함. 이에 제주의 빛나는 비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당부함.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행정</p>	<p style="text-align: center;">청년</p>	<p>- 국민의힘 비례대표 청년 공개오디션 불공정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해 야심 차게 새롭게 도입한 청년 공개오디션 방식이 권역별 투표의 맹점인 동원 경쟁 취약성과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정치 신인 청년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됨. 당내 청년 및 여성 당원 단체들이 심각한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며 크게 반발함. · 당내 뜻있는 청년 및 여성 당원들은 청년정치가 표면적인 행사성 장식이나 단순한 당의 외연 확장용 소모품으로 전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함. 진정한 청년 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산점 제도의 공정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보다 투명한 룰과 엄격한 검증 절차 등 근본적인 내부 문화 개선이 시급함을 강력 촉구함. <p>- 진보당 정근호 예비후보의 제주청년 메카 연동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에 당찬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정근호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월 15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 정기 지급을 최우선 골자로 하는 제주청년 메카 연동 핵심 공약을 전격 발표함. 청년들의 팍팍한 삶을 실질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함. · 정 예비후보는 대중교통 무상버스 전면 도입,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의무 적용, 양질의 청년 정규직 일자리 400개 창출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 지원책을 제시함. 이를 통해 무한 경쟁 속에 시들어가는 청년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연동을 명실상부한 제주 청년 문화의 최대 중심지로 탈바꿈시킴.

	<p>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 예비후보들의 맞춤형 청년 정착 및 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오는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인 오영훈 현 지사는 무주택 직장인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우수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장기 거주 시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분할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까지 가능한 획기적인 노동 연계형 청년 기본주택 공약을 핵심 민생 정책으로 전격 제시함. ·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등 주요 유력 도지사 후보들 역시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제주를 등지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주거, 교육, 고용을 다각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맞춤형 청년 정착 프로그램과 청년 5대 패스 등 매우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청년 우대 정책들을 앞다투어 약속함.
<p>정치·행정</p>	<p>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 찬반 갈등과 원안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이 무려 100년이 넘는 귀중한 솔숲 훼손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와 행정 당국 간 극심한 찬반 갈등을 오랫동안 빚어온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공론화 추진단이 3개월간의 치열한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친 끝에 왕복 4차로 원안 유지라는 최종 정책 권고 결론을 도출하여 행정에 공식적으로 제출함. · 102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최종 투표 결과 66.7퍼센트의 다수가 환경과 도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원안 유지를 압도적으로 선택함. 이에 추진단은 행정 당국에 기나긴 갈등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와 학생 등하곳길 안전 최우선 확보 등 6대 핵심 권고사항을 충실하고 진정성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함. -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와 숙의 공론화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제2공항 대규모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어 온 도민 사회의 극심한 찬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해당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조기에 지정하고 투명한 환경 검증을 바탕으로 한 도민 주도의 숙의 공론화 절차를 새롭게 적극 도입하겠다는 전향적인 정책 방향을 전격 발표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환경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일방적인 찬반 결정이 아닌 모두가 기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함. 이를 통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의 극단적 확산을 미연에 철저히 예방하고 제주 도민의 정당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완벽히 보장해 나갈 치밀한 계획임. - 여야 주요 정당 도의원 공천 파열음과 내부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 모두 컷오프 등 공천 배제 및 경선 룰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심각한 내홍을 겪음. 불공정한 밀실 심사 방식에 크게 불만을 품은 일부 유력 예비후보들이 기득권 세력을 맹비판하며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공식 예고하는 등 극도의 혼란이 가중됨. · 민주당은 중대한 전과 이력이 있는 예비후보의 석연찮은 단수 공천 과정에서

	갈등	<p>명확한 검증 기준 부재로 공정성 시비가 거세게 일고 있음. 국민의힘 역시 출마 당사자와의 사전 합의가 전혀 없는 기습적인 심사용 여론조사 꼼수 강행과 당직자 간 폭행 고소 의혹까지 연이어 불거지며 공천을 둘러싼 조직적이고 치명적인 자중지란 사태에 직면함.</p>
정치·행정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곤 예비후보의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곤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가 무려 100조 원대 막대한 민간 자본을 집중 유치해 10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초고압직류 송전망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하는 혁신적인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대형 프로젝트를 자신의 핵심 도정 공약으로 야심 차게 공식 발표함. · 이 거대한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4조 2000억 원의 경이적인 매출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순수익을 도민들의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고스란히 환원함. 제주의 풍부한 청정 바람 자원을 적극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함. - 고유가 에너지 위기 대응 공직자 차량 5부제 전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지역 분쟁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자동차 기름값의 유례없는 폭등과 심각한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산하의 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 전체를 전면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전격적으로 전면 도입하여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함. · 차량 번호의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의무적으로 강력히 제한하여 전체 공공기관 차량 운행량을 약 20퍼센트가량 획기적으로 대폭 감축하고 연간 약 138톤에 달하는 막대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구체적 계획임. 다만 친환경 전기 차량이나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예외로 규정함. - 오영훈 지사의 에너지 대전환과 분산에너지 특구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선 도전에 힘차게 나서는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가 2035년 완전한 탄소중립 달성을 확고한 목표로 분산에너지 특구 특별 지정과 전기차 전력망 연계 혁신 기술 등 다양한 미래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의 가장 성공적인 롤모델로 확고하게 선도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강력한 자신감을 표명함. · 유휴 공간인 비닐하우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전면 설치한 선도적 농가와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친환경 숙박업소 모델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킴. 나아가 모든 도민에게 에너지 직접 생산에 따른 경제적 막대한 이익을 이른바 바람·햇빛 연금 형태로 공평하게 매월 지급하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 문명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임.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모빌리티(엑스포/전기차), 국제, 항공(노선/운항), 세계, 기술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모빌리티(엑스포/전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e모빌리티 미래를 핵심 주제로 삼아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협력 확대와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3회 국제 엑스포가 제주신화월드에서 성황리에 개막함. · 과거 전기차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아우르며, 기술 전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B2B형 융합 플랫폼으로 적극 운영됨. - 2027년 평양 국제전기차엑스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e-모빌리티협회의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전기차 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7년 9월 평양 과학기술전람관과 원산 갈마지구 등을 연계하여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개최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 북한의 탄소중립 목표 수립 및 대중교통 전력화 시도를 바탕으로 재생 에너지와 전력망이 결합된 미래 에너지 산업을 구현하고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참여하는 남북 교류 재개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임. - 엑스포 연계 전기차 무상 점검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전기차 보급 확산과 사용자들의 화재 등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수리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엑스포 방문객의 순수 전기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함.
-------	---------------	---

	모빌리티(엑스포/전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어 마모도와 냉각수 등 6개 항목에 대한 기본 점검을 비롯해 배터리 수명 측정, 배터리 관리 시스템 오류코드 스캔 등 핵심 시스템의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자가 차량의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원함.
경제·관광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관광전략회의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제주 외국인 관광 허브 달성을 목표로 국가 관광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전 분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제주관광전략회의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함. · 범중화권에 편중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파리, 두바이 등 고부가 노선 전세기 유치를 추진하고 해외 홍보사무소를 신설하며 제주 무사증 제도를 남해안권으로 확장하여 연계 관광을 허용하는 특례를 정부에 건의함. - 제주-대만 직항노선 활성화 및 밀착형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를 찾는 대만 관광객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대만 현지에서 밀착형 관광 홍보 프로모션을 전개하여 핵심 신흥 시장으로서의 굳건한 입지를 강화함. · 대만 주요 여행업계 및 4개 직항노선 운항 항공사와 협력하여 노선 안정화와 공동 마케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만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 확대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도출함. - 방한 외래객 확대를 위한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참가 규모가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중대형 국제회의를 제주로 집중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마이스(MICE) 시장 내 제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 · 이를 통해 2032년까지 외국인 8000명을 포함한 1만 명 규모의 방한 수요를 집중적으로 확보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으며, 해외 조직망을 활용한 공동 홍보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분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함.
	항공(노선/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만의 제주-인천 국내선 직항 노선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6년 운항이 중단되었던 제주항공의 인천-제주 국내선 노선 사업계획을 허가하여 오는 5월 12일부터 주 2회 왕복 정기편 운항이 약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재개될 예정임. · 이번 국내선 신설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이용객이 김포공항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바로 제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환승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됨. - 하계 정기 항공편 일정 확정 및 LCC 대체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는 계절적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올해 하계 정기 항공편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국내선 20개 노선 중 제주 노선에 주 1534회를 배정하고 국제선 운항 확대와 더불어 지방 공항 간 연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함.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인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의 이행 명령으로 축소되는 제주-김포 핵심 노선에는 저비용항공사(LCC)가 대체사로 공식 선정되어 철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여객 운항을 본격화함.

경제·관광	항공(노선/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편의 증진 위한 제주-인천 환승 내항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을 연결하여 이용객들이 별도의 국내선 입출국 심사 없이 환승구역을 통해 곧바로 국제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환승전용 내항기를 매일 운항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 · 내항기가 성공적으로 취항할 경우 수하물을 최종 목적지에서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어 도민들의 해외여행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며, 중화권을 벗어난 미주 및 유럽 관광객의 제주 유치와 국가 다변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됨.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e-모빌리티협의회(GEAN) 제11차 총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세계 e-모빌리티협의회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제11차 총회를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청사진을 제시함. · 협의회는 기존 전기자동차 중심의 영역을 넘어 전기선박과 미래항공모빌리티 등으로 확장하고 엑스포를 아세안과 중동 지역으로 적극 확대하여 회원사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글로벌 B2B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언함. - 세계적 해상 탄소 규제 대응 친환경 선박엑스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의 핵심 축으로 진행되는 제4회 국제 친환경 선박엑스포는 전 세계적인 해상 탄소 배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K-조선의 미래 전동화 전략과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의 탁월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전기 어선과 전기 유람선 등 해상 전동화 실증 기지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해양 모빌리티 강국으로 확고히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함. - 제주올레-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공동완주 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한·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를 계기로 도입되어 제주올레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각각 100km 이상 걸으면 공동 완주증을 발급하는 인증제가 해외 도보여행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음. · 인증제 도입 이후 제주올레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글로벌 산티아고 순례자 커뮤니티에서 제주가 새로운 걷기 여행 명소로 언급되며 세계적인 도보여행의 핵심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둬.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스마트 주방 구축 및 푸드테크 기술 실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고령화에 따른 극심한 인력난 등 구조적 현안을 푸드테크 기술로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나 사회복지시설 등 수요처에 AI 기반 로봇 연계 스마트 주방 구축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디지털 혜택을 확대함. · 맞춤형 주방 로봇과 인공지능 모니터링 센서를 지원받아 지능형 조리 레시피를 개발하고 청정 자원을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세계 푸드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함. - AI·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 활용 기후 및 관광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과 디지털 분야의 핵심 연구 거점을 지역에 구축하기 위해 제주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인 제주권연구본부 시범사업이 2차년도에 본격 돌입하며 기술 현장 실증과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함. · 축산업 탄소저감을 위한 지능형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을 가속화하며 지역 상생 혁신

경제·관광	기술	<p>을 위한 전문 반도체 설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함.</p> <p>- 카카오 오픈이노베이션 통한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주식회사 카카오 등 4개 그룹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우수 딥테크 및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동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2026 오픈 그라운드 참가 기업 모집을 실시함. ·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대기업의 플랫폼 역량과 기술적으로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유망 기업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기술 검증(PoC) 프로젝트와 사업화 협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방형 혁신 기술 생태계를 확고히 조성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사건, 의료, 대응, 사례, 구조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사건	<p>- 구좌읍 생후 3주 영아 사망 및 부검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구좌읍의 한 주택에서 생후 3주 된 남자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심폐소생술(CPR) 시도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임. · 경찰의 기초 확인 결과 영아의 몸에서 외상 등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
-------	----	---

지역·사회	사건	<p>았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향후 부검을 진행하여 사고사와 범죄 연루 여부를 철저히 가릴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폭행 혐의 기소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의 전 사무처장 폭행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지난해 6월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다만 이 전 사무처장이 주장한 이튿날의 추가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혐의 의견을 냈으며, 이번 결정은 정치권 내 갑질 논란과 맞물려 수사 공정성을 확보함. - 제주 해안가 차 봉지 위장 마약류 대량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 갯바위에서 차(茶) 포장지에 담긴 1kg 분량의 케타민 의심 물체가 잇따라 발견되어 해경이 수거하고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사건임. ·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해안에서 발견된 동일 수법의 마약류는 총 20차례, 39kg에 달하며, 해경은 해상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다환경지킴이와 협력하여 해안 전역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임.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과 의료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함으로써 도내에서 중증 및 응급 질환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와 절차가 본격화됨. · 전문 의료 인력 수급 원활화와 의료 자급률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지정 시 1·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수적인 점에 따른 접근성 제한과 2차 종합병원의 공백 우려 등 보완 과제도 제기됨. - 제주대학교병원 차기 병원장 공개 모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가 임기 만료를 앞둔 최국명 원장의 후임을 선발하기 위해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으며, 지원 자격은 의과대학 교원 또는 10년 이상의 의료 경력을 가진 인사로 이사회 추천과 장관 임명을 거치게 됨. · 신임 원장은 현재 병원이 직면한 경영 악화 해소, 전문 의료진 유출 방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며, 공모 결과에 도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치과 치료 400건 돌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학교병원 내 제주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일반적 진료가 어려운 중증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시행한 전신마취 치과 치료 건수가 최근 400건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둬. · 장애인 전용 수술실과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해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2,500명의 장애인 환자에게 전문적인 구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길 잃음 주의보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소방안전본부가 고사리 채취와 오름 탐방 등 야외활동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최근 5년간 발생한 558건의 사고 중 60%가 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관리를 강화함.

	<p>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산악안전대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헬기 및 구조건을 투입한 합동 수색 훈련을 실시하는 등 조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 - 이륜자동차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 전면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3월 20일부터 지역명 표기를 삭제한 전국 단위 이륜차 번호판 제도를 시행하며, 번호판 크기를 키우고 글자 색상을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하여 주행 중 식별성을 높이고 단속 및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함. · 신규 및 재사용 신고 시 전국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나, 차량 구조상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역 번호판 발급을 허용하는 유연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용자 불편 최소화를 도모함. -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선거사범 단속 체제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24시간 감시 및 무관용 수사 원칙을 적용한 엄정 대응에 나섬. · 온라인상 비방 행위와 여론조사 조작 등 불법 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선거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킴.
<p>지역·사회</p>	<p>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유괴 의심 사례 보고 및 수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서 고령의 여성이나 차량 탑승자가 학생들에게 접근해 도움을 요청하며 유괴를 시도했다는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어 학교 현장의 긴급 가정통신문 발송과 경찰의 전수 조사가 실시됨. · 조사 사례 중 일부는 배탈이 난 노인의 실제 도움 요청으로 확인되어 혐의 없음 종결되기도 했으나, 경찰은 최근 2년간 발생한 모든 아동 약취 유인 범죄에 대해 100% 검거율을 유지하며 등하교 시간 순찰 강화로 대응 사례를 축적함. - 폐어구 얽힌 새끼 돌고래의 스스로 생존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12월 꼬리와 등지느러미에 폐그물이 감긴 채 발견되어 구조 전담팀의 모니터링을 받아오던 남방큰돌고래 새끼 '쌌돌이'가 발견 87일 만에 스스로 그물을 완전히 끊어내고 자유롭게 수영하는 모습이 포착된 희귀 사례임. · 유명 속도가 너무 빨라 물리적 구조 시도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인간의 무리한 개입 대신 행동 분석과 추적 관찰을 지속한 결과 생존에 성공했으며, 향후 등지느러미 상처를 표식 삼아 지속적인 건강 상태 모니터링 사례로 활용될 예정임. - 배달앱 음식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적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 닭발을 국내산으로 거짓 기재하여 판매한 도내 음식점 7개소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입건됨. · 최근 배달 이용 급증에 따라 수입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빈번하며, 당국은 사이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사례를 구축 중임.
	<p>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 지형 특화 119 인명 구조 및 합동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소방안전본부가 광역 합동 기동 수색 훈련을 통해 고사리 채취객 등 조난

지역·사회	구조	<p>자 발생 시 소방헬기 3대와 119구조견 9마리를 투입,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수색하여 골든타임 내에 생존자를 발견하는 구조 역량을 점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국가지점번호판을 활용한 정확한 위치 파악과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한 산간 밀폐 공간 수색 기법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최다 수색 실적을 거둔 구조견들을 활용해 복잡한 중산간 지형에서도 완벽한 인명 구조 체계를 가동함. <p>- 제주 최초 여성 사다리차 운용 전문 소방관 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소방안전본부 소속 이지현 소방교가 고층 건축물 화재와 인명 구조 현장에서 필수적인 전문 장비인 고가 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을 도내 여성 소방관 중 처음으로 취득하여 재난 현장의 대응 인력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인 사례임. · 사다리차 운용은 고도의 숙련도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분야로, 이번 여성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소방 현장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적 변화를 이끌었으며 향후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의 구조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p>- 해상 기름 유출 대비 로봇형 유회수기 구조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해양경찰서가 해상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무겁고 매연이 발생하는 유압식 장비 대신 배터리 구동 방식의 경량 로봇형 '유회수기'를 현장 배치하여 해양 환경 구조 인프라를 스마트화함. · 무선 리모컨 조종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위험한 해역에서도 원격으로 기름을 수거할 수 있으며, 휴대성이 좋아 소형 선박이나 해안가에서도 즉시 투입이 가능해 대규모 해양 오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효율적 구조 수단으로 활용됨.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